

C9004 글로벌인컴FOFS(달러형)

※ 공지 사항

-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글로벌인컴FOFS(달러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 자산은 우리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일 운용됩니다.
-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 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글로벌인컴FOFS(달러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AN083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최초설정일	2013.07.17
운용기간	2025.01.01 ~ 2025.03.31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미국 등 해외 고배당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펀드로, 펀드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USD)입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천USD, 천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글로벌인컴FOFS(달러형)	자산 총액 (A)	187	108	-42.11
	부채 총액 (B)	0	0	-29.66
	순자산총액 (C=A-B)	187	108	-42.1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12,046	6,857	-43.07
	기준가격 (E=C/D × 1000)	15.49	15.75	1.68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1분기 글로벌 선진 증시는 MSCI World Net TR 지수 기준 -1.7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반복으로 인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글로벌 자금 흐름이 비미국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수급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1월 CES 2025에서는 NVIDIA의 신기술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되며 주가가 급락했고, 이는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 전반의 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중국의 DeepSeek 충격도 미국 AI 기업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지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시장 기대를 하회했습니다. 2월에는 관세 부과 여파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소비심리가 후퇴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산 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 관세 부과 및 예산 삭감을 통한 강력한 정책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에서는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모든 교역국에 대해 10% 기본 관세와 더불어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개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국가별 관세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관세 부과 대상국이 광범위한 점 등 발표된 상호관세 수준이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었다 평가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인플레이션 상승, 교역 이외 소비 및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2차 효과로 확대되며 미국 경제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증대되었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역시 확대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관세가 예상보다 강했던 만큼 연준은 향후 추가금리 인하 판단에 있어 물가보다는 경제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됩니다. 다만 반복관세 및 중간재 투입 원가에 미칠 파급효과 등으로 인해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에 따라 추가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중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글로벌인컴FOFS(달러형)	1.68	-1.25	4.79	5.49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글로벌인컴FOFS(달러형)	5.49	12.90	6.78	44.23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천USD)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6	-	-	-	-	-	-	-	-7
당기	-	-	-	4	-	-	-	-	-	-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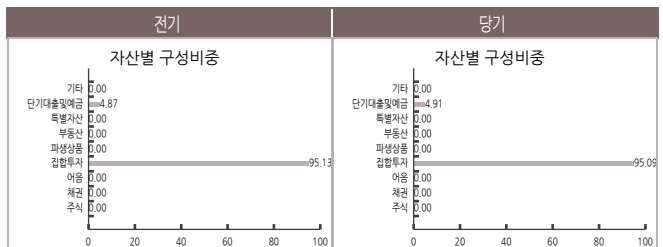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천USD,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USD	0	0	0	103	0	0	0	0	0	5	0	108
(1,472.90)	(0.00)	(0.00)	(0.00)	(95.09)	(0.00)	(0.00)	(0.00)	(0.00)	(0.00)	(4.91)	(0.00)	(100.00)
합 계	0	0	0	103	0	0	0	0	0	5	0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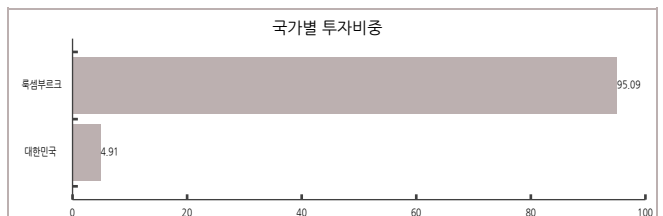
※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국가명	비중		국가명	비중
1	룩셈부르크	95.09	6		
2	대한민국	4.91	7		
3			8		
4			9		
5			10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Franklin Income Fund	95.09	6		
2	단기상품 USD Deposit	4.91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천USD,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Franklin Income Fund	수익증권	101	103	룩셈부르크	USD	95.09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천USD,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외화예금	한국씨티은행	2013-07-17	5	0.00	-	대한민국	USD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76	2,184,570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6	2,184,570	2119000109
윤유라	과장	76	2,184,570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0	0.08	0	0.08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0	0.10	0	0.10
기타비용	0	0.02	0	0.03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	-
	합계	0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계상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ESG관련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5078	0	0.5078
당기	0.5418	0	0.5418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 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해외재간접구조 현황

- 1) 해외운용사명: Franklin Templeton
- 2) 해외소재지: 룩셈부르크
- 3) 해외운용전문인력: Edward D. Perks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중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 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인컴FOS(달러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면에서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